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8호 [루게 제24621호] 주제103(2014)년 7월 27일 (일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사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의 전승명도사와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무적필승의 강국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영원불멸할 전승의 년대에 승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올해의 전승절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21세기의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펼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는것으로써 더욱더 의미깊은 혁명적명절로 되고 있다.

승리의 7.27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불패성의 상징이다.

해마다 7월 27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선군의 기치높이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있어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애가 온누리에 펼쳐지게 되었으며 반제자주위업이 활력에 넘쳐 전진해올수 있었다. 승리의 7.27이야말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세세년년 경축하며 빛내여나갈 할 혁명적명절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반제투쟁사에 특기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결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메어주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펼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찍이 없었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가렬치열한 혁명전쟁이었다. 장진되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백두산대국의 침략역사를 가진 미제와의 대결을 세계가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본것은 결코 유례없는 아니다.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꺾어뜨리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미제가 바친 항복서를 받고 전승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온 세계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신념, 전략술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기상과 대승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였으며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술과 전법들은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압도할수 있게 한 위대한 보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셨던 우리는 처음부터 승리한 전쟁을 하였으며 전쟁 전과정이 전례없는 전과들과 혁혁한 위훈으로 수놓아지게 되었다. 미제를 피승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승하여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오시고 반제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정지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전승의 추모가 오래 때로부터 6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라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의 귀중성과 의의가 더욱더 뚜렷이 부각된 긍지높은 나날이었으며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혁명의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인류자주위업이 줄기차게 전진해온 전투적로정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우리 조국이 반제투쟁의 시대적과업을 창조하며 불패의 위용을 펼쳐올수 있게 한 고귀한 재보이다. 미제와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우리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반제투쟁의 전초선으로 되고있다. 60여년에 걸치는 치열한 반미대결전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련전련승을 펼쳐올수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는 천만대결이 엄벌되어도 끄떡하지 않고 대담하게 맞받아나갈 단애에 격파불패하는 무비의 공격정신과 전취위부의 모습에 깃들여 있다. 반미대결전에서의 백승의 고귀한 경험과 지침이 다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혁명의 년대



들마다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후에블로》호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의 무분별한 침략행동이 강행될 때마다 배심든든하게 적들을 다물리며 세계의 면전에서 원수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길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과 21세기의 첨예한 반미대결전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군사적기적을 안아온 비결도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이겨낸 자랑스러운 전통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의 만년초석이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패배를 잊어버리고 반공화국책동에 미쳐날뛰고있지만 위대한 전승업적이 찬연히 빛나는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주체의 군건설과 선군혁명, 선군혁명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올수 있게 한 고무적기치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절대적전리성과 우리가 가는 선군의 길이 천만번 울타는것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주체적군건설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았으며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강화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여지없이 깃부서버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전법, 평활무쌍한 전략들은 우리의 모든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었고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진행된 전투들과 단계별전략들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귀중한 교과서로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가 반제군사전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당백강군의 위용을 펼쳐올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민대결도 사랑과 믿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사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 앞날을 내다보시며 자립적국방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실험을 기울여오시였기에 우리의 국방공업이 오늘날과 같이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력사의 첩리이다. 주체적군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반제투쟁의 준엄한 혁명실천속에서 선군혁명명도의 마

고귀한 지침과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떠민 위대한 추동력이다.

지난 20세기 중엽까지만 하여도 강대한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로 간주되고있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 버리고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 크나큰 활력을 안겨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세련된 령군술에 의하여 《불패》의 전통을 자랑하던 미제의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이 조선의 산과 들, 바다에서 무주고혼이 되었다. 전쟁으로 길들여진 미국의 경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하여 미제국주의는 결코 타 승하지 못할 강국이 아니며 사상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것이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신념으로 간직되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미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세계적규모에서 반제투쟁이 본격화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피압박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인류자주위업의 걸출한 수령, 혁명의 대성인으로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빛내이며 반제투쟁의 불멸의 영웅사시를 창조하여 온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명도사는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찍이 총대와 인연을 맺으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현시찰로 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반미투쟁의 전두에서 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오시었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력사의 첩리이다. 주체적군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반제투쟁의 준엄한 혁명실천속에서 선군혁명명도의 마

지막시까지 초인간적인 의지로 선군명도의 길을 걸으시며 전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백전백승을 수놓아온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애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 높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과 온 겨레,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회세의 걸출한 정치군사가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을 전철로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며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백두산대국으로 존엄떨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민족사적, 인류사적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고 선군혁명사상의 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크나큰 실험을 기울여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최대열점지역의 심초소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전군에 백두산련합명령을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지지도는 선군의 총대로 반미대결전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달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전세대의 영웅적위훈은 오늘의 시대에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이 승리전승공양의 중심지, 반미계급공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각지에 인민군관사묘들이 꾸려져 천만군민의 반제투쟁의지를 백배해고있다. 전쟁로병들이 참다운 애국자,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떠날드리우고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군민대결, 군민협동투쟁의 위력이 최대로 발휘되고있으며 핵보검을 틀어민 백두산혁명군대의 필승의 기상이 더욱 힘있게 펼쳐지고있는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따라 역세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힘찬 진군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전멸시키고있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침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는 우리의 대응방식은 확고부동하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하며 전승은 오

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갈 승고한 도덕적리심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간고한 조국해방전쟁과 장구한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셨듯이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서 얼마나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셨는지 그 뜻을 배와 살로 새겨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명도, 품도의 위대성이 집대성되어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견결히 옹호하고수하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가장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포부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1950년대처럼 승고한 혁명정신과 결사의 각오를 지니고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것이다. 가려져졌던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끝없이 싸워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첨예한 반미대결전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대처럼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역세게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팍 차넣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전화의 용사들처럼 어떤 역경에 처하고 실수 죽음을 앞치면 가로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정을 지녀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수령력사용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명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

며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뜻있게 걸어나가야 한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혁명의 과녁, 계급투쟁의 과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결이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모든 문제를 예리한 계급적안목과 견결한 대적판점에서 대하여야 한다. 적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이나 공포도 죽음이라는 자각, 혁명의 원수, 계급의 원수들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런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는 비타협적투쟁정신, 미제와는 거이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행동을 단호히 짓부셔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군사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

무적의 총대는 전승의 군분담보이다. 우리는 장구한 혁명명도사를 총대와 함께 빛내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대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최후승리가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영웅적투쟁력사를 새겨온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민용직한 최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김일성-김정일전략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꾼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 전쟁은 예고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 어떤 불의의 정황에도 신속히 강력하게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후방사업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기본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지니고 전군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참된 동지가 되어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미제를 때려부시던 그때처럼 군민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조국을 군민대단결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들은 군대를 떠나서 조국도, 가정의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원군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자위적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대처럼 필승히 다져나가야 한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키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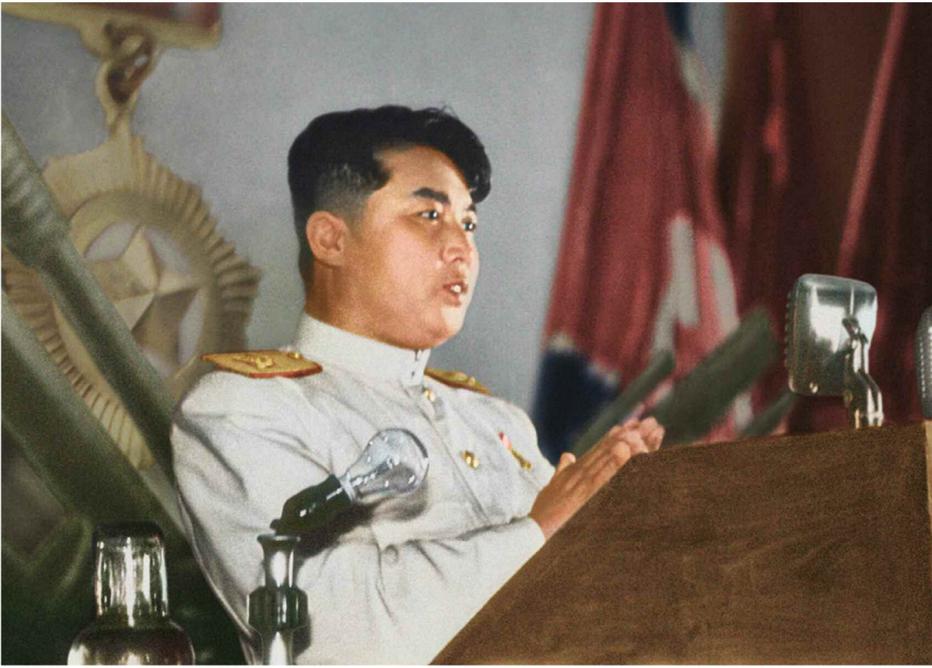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며 싸우는 고지에 무기와 탄약, 식량을 생산보장하던 그 정신, 그 열정과 투지는 오늘날도 귀중하고 래일도 귀중하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보란듯이 세세년년 전승속도를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번영을 힘차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그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성책용위전을 맹렬하게 벌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그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성책용위전을 맹렬하게 벌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그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성책용위전을 맹렬하게 벌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가려져졌던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끝없이 싸워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첨예한 반미대결전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대처럼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역세게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팍 차넣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전화의 용사들처럼 어떤 역경에 처하고 실수 죽음을 앞치면 가로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정을 지녀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수령력사용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명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

며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뜻있게 걸어나가야 한다.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전국 전투영웅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39(1950)년 11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7월



기계화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39(1950)년 5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6월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12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6월



↑ 전투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1(1952)년 6월
←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4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는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은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끝없이 빛내여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지략, 비범한 령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이 세상 가장 포악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물리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으신 회세의 천출명장,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날강도 미제와 싸워 이긴 영웅적대, 영웅적인 민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한 전승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 태양조선의 미래는 천만년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락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산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1950년대의 전승과 더불어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거대한 업적이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리

러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7.27전승업적과 선군혁명승리의 업적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미제가 기어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킨다면 민족의 속망이 무겁게 실린 계급의 총대, 정의의 총대로 원수들을 썬도 없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7.27전승기적은 최후승리의 기적으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기적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

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오금철동지, 윤동현동지, 박정천동지, 최룡해동지, 리재일동지, 한광상동지, 김영훈동지, 리중무동

지가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의 경기모습을 보여드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하여 선수들과 감독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동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우리 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았고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4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국놈들의 항복서를 받아낸 이 나라 천만군민이 61년전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 멸망을 선고할 새 세기 승리의 7.27로 만들 억척불변의 결심을 품고 뜻깊은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윤동현동지, 리병철동지, 오금철동지,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 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라격부대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상장 김경동지를 비롯한 화력라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의 현 배치상태와 그를 타격 소멸할수 있게 가상하여 세운 발사계획을 보아주시신 다음 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이날 훈련에서도 화력라격부대의 전투력과 기술로켓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

에 주체적인 로켓과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라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러친 이번 화력라격훈련의 폭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하시며 전략군의 거듭되는 훈련성공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놈들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명분도 똑똑하지

명줄을 영영 끊어버리고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조국통일대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갈 결사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3 면 에서 계속

두 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하여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의 백철불굴의 완강한 의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과시하였다.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구선수들이 수준이 높은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식의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림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공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감독들은 자기들의 경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당의 체육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제2의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신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맛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도가 있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때려부신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될치게 되었다.

대 회 장 인 4.25 문화 회 관 은 신군조선의 자랑찬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 회 장 정 면 에 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크나큰 공지와 환희에 넘쳐 승리의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울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체 《승리》상도형과 《전승 61돐》 그리고 《7.27》

이라는 글자들이 걸려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 일 성 동 지 께 최 대 의 경 의 를 드 린 님 다 》, 《 경 에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령 도 따 라 주 체 혁 명 위 업 을 끝 까 지 완 성 하 자! 》 라는 구 호 들 이 대 회 장 에 나 붙 어 있 었 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 회 에 는 당, 무 력, 정 권 기 관, 사 회 단 체, 성, 중앙기 관 일 군 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 병 들, 평 양 시 내 기 관, 공 장, 기 업 소 일 군 들, 영 용, 전 쟁 로 병, 제 대 군 인, 인 민 군 후 방 가 족, 공 로 자, 로 혁 혁 신 자 들 이 참 가 하 였 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 조 여 러 나 라 외 교 대 표 들 과 국 제 기 구 대 표 들, 무 관 들, 외 국 수 선 님 들 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김로동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전쟁로병들, 영웅,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현영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전 제 참 가 자 들 은 위 대 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 께 서 오 시 고 빛 내 주 신 신 군 조 선 의 자 랑 스 러 운 승 리 의 력 사 와 전 통 을 끝 낀 히 이 어 나 가 며 경 에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의 령 도 따 라 백 두 산 혁 명 강 군 의 위 력 과 불 폐 의 군 민 단 결 로 반 미 대 결 전 과 강 성 국 가 건 설 의 최 후 승 리 를 앞 당 겨 나 갈 불 타 는 열 의 에 넘 쳐 있 었 다.

대회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와 영광의 경의를 드린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승리의 7.27은 백두산대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전군을 다그쳐 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주체 42(1963)년 7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전승을 이룩한것은 조선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류해방 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습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반체투쟁사에는 제국주의 강적들을 타승시키고 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조국평화에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 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7.27은 우리 민족의 제2의 해방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고된 생명을 바친 인민군용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남이며 반체투쟁의 새로운 장을 이룩한 력사적승리의 날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거렬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저들의 침략 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피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막대한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총동원하였으며 온갖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체 조선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피를 물고 날뛰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결사항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3년간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참패를 안기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력사는 우리 공화국처럼 창건된 지 2년도 안되는 나라가 력량관계에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강대하고 포악무도한 침략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이긴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될치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였으며 반체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장거였습니다.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중공정복패를 촉진시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자부심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의 7.27은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후손민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승리의 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전체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 명활무쌍한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전쟁의 전행정에서 인민군대의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하시였습니다.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에 대처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전쟁승리의 요인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고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전쟁에 전인민적인 해방전쟁으로 맞서 싸우며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격파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들은 전쟁승리의 위력한 기치로 되었습니다.

전체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 명활무쌍한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전쟁의 전행정에서 인민군대의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하시였습니다.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에 대처한

즉시적인 반공적전략과 대담한 포위섬멸전, 정구부대들에 의한 적후 2전선의 형성, 갱도전과 비행기사냥군 조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과 전술, 전법들은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침략자들을 수세에 몰아넣게 하였습니.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을 쉬임없이 찾으면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 주시고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서울과 대전, 월미도와 1211고지를 비롯한 싸움터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남게 한 근본원

인이였습니다.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난 청소한 나라와 인민을 이끄시어 강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쳐물리치는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은 현대전쟁사의 빛나는 귀감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이며 명활무쌍한 전승명도사는 오늘날도 세계의 전쟁사들과 군사전략가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투쟁의 진로를 찾고있습니다.

6 번 으 로 계 속

이것이였습니다.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난 청소한 나라와 인민을 이끄시어 강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쳐물리치는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은 현대전쟁사의 빛나는 귀감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이며 명활무쌍한 전승명도사는 오늘날도 세계의 전쟁사들과 군사전략가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투쟁의 진로를 찾고있습니다.

6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욱 정중히 모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모란봉구역 월향동 58인민반 윤옥희, 보봉강구역 세거리동 17인민반 장정생은 수십년 세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백옥같은 충성을 바치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봉화지도국 부원 강일남은 오랜 기간 만수대언덕에 올라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평양인쇄공업대학 로동자 백춘순도 날이 갈수록 더해진 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순결한 망심을 바치고있으며 여러차례 정성비품들도 기증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 잘 꾸리는데 기여한 한마음안고 인민봉사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옥경은 정성껏 마련한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던 동대원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영철은 조선혁명박물관주공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에 성의를 다하였다.

락원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경희, 고

려은행 부원 리향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데 필요한 정성비품들과 많은 지원물자들을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연구사 리철호도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마음안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문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칠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3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까라카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3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3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정국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이번 귀 당 제3차대회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불리바르사회주의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귀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친선호조관계가 앞으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귀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3(2014)년 7월 26일

평 양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승고한 혁명적의리와 고결한 의리의 정화도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한 외국인들은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철매공산당(프롤레타리아행동)대표단 단장 에두아르도 아르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매우 웅장하고 숭엄하게 건설되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렬사들은 나라가 내세워주지 못한 위훈을 훌륭히 계승해나갈 때만이 그들의 혁명적의리와 승리의 전통이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역사적전통이 있어 조선인민은 자기 위엄에 대한 심신을 넘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만만명평대선발전당대표단 단장 아웅 테인 린은 후대들에게 선렬들의 대적적영웅주의와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는 데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점들을 통하여 세 세대들에게 고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사람들의 애국주의정신이 조국로 투철한 것은 바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란지니아군사대표단 단장인 니쿠루파 음완칸에는 이렬사묘는 전세대대의 투쟁업적과 넉을 영원히 빛내이며 세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조선은 훌륭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는데서 으뜸이라고 말하였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청년동맹대표단 단장 아나톨리 둘가체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떠나간 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절감할수 있었다.

세상에는 려사묘들과 기념비들이 많지만 평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평도아래 웅장하게 일떠선 이런 훌륭한 려사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경치 좋고 아름다운 명당자리에 몸소 티전을 잡아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바친 전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이야말로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이다.

로스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 아나톨리 둘가체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떠나간 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절감할수 있었다. 세상에는 려사묘들과 기념비들이 많지만 평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평도아래 웅장하게 일떠선 이런 훌륭한 려사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경치 좋고 아름다운 명당자리에 몸소 티전을 잡아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바친 전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이야말로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이다. 로스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

동맹대표단 단장 에르베니 에르몰라에 브는 조국수호전에 서 위훈을 떨친 려사들의 묘를 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평도자에 대한 열렬한 충정과 참다운 조국애를 간직한 조선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청춘도 생애도 아낌없이 바치었다.

전쟁의 포화가 덮고 세대와 세기가 바뀌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조선의 영웅전사들은 수령의 기억속에 남아 후대들의 귀감으로 영생하고있다.

자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런 애국자, 영웅들의 용감한 투쟁이 있었기에 조선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피로써 정위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며 적을 부단히 소멸화시키기 위한 투쟁적인 전법들이었다. 땅크사냥군조준문과 놓고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지리적특성과 기술적우세를 매달리고있던 적들의 전술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창조된 우월한 전법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땅크사냥군조원들은 반땅크수류탄과 반땅크지뢰를 가지고 이동중에 있거나 집결되어있는 적방군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습격파괴하였다. 독창적인 주체전법으로 원수들을 경악케 한 인민군대의 주동요원도 명철한 전투행동에 미처는 가는 곳마다에서 비명을 질렀다. 저격수조화통과 야간습격전에 흔드낌이 난 미제는 (낮에는 인민군대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들고 밤에는 또 버락같이 죽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민군습격조때문에 울적달락할수 없다. >>고 비명을 질렀으며 우리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에 혼날이 난 적들은 《인민군대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안긴다. >>《인민군대에 쉘 포가 지렁이 같았다. >>《인민군대의 포탄에는 눈이 달렸다. >>고 공포에 떨었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략전술적우세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앞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함 코때는 여지없이 꺾어졌으며 주제 42(1953)년 7월 27일 미제침략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60여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는 강대한 혁명무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힘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60여년간의 역사적고훈을 망각하고 미쳐날뛰고있지만 또한 한분의 백두산철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대를 이어 불세출의 선군정장을 모시고 우리 조국은 영원히 승리의 려사만을 아로새길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돌에 즈음하여 26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진정

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뜨거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승고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경도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경도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승리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전승의 축포는 영원할 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그 가렬성과 업훈성에 있어서 한 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가장 치열하고 준엄한 전쟁이었다. 청소환 우리 공화국과 110여차례의 칩락전쟁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자처하는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전이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표시한것이 결코 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대적의 무리, 제국주의 칩락자들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렬치열한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시였으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자주적인인민이 승리하는 반제반미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령장, 그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투쟁의 창간자이며 제국주의의 강적을 반대하는 투사들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다!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역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까지 전쟁력사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법, 뛰어난 지략으로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였다.

전쟁에서 전략의 제시와 성과적실현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법의 대 국면마다에 내놓으신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략은 준엄한 전쟁극을 연출시키고 원수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겼으로써 전쟁의 최후승리를 안아왔다.

미제의 불의의 무력침공에 즉시적인 반공적전략으로 맞서 조국땅에 주체의 불꽃을 불어넣은 적들을 군사비하게 격멸소탕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연속적인 공격으로 전략적,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제 1차 작전인 끝까지 하 루진인 6월 28일에 전선연합부대들에 2차작전 임무를 하달하시고 1차작전이 끝난 다음날부터 즉시 2차작전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 작전방침에 따라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작전이 개시되던 며칠만에 적들이 《제 2군거지》로 삼았던 수원과 인원을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특공대를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의 비범한 평도를 받는 군대로서의 기개를 세계에 떨칠수 있었다.

오산전투에 이어 전선연합부대들은 연속공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 지역을 건너 전선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지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자와 립접해있는 피뢰군부대들이 미제 24

이것은 오직 항일의 불바다속을 헤치시던 나날 기민한 우회전으로 적을 소멸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철한 작전전술적방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지략과 작전 전술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대적해방전투에서 미제의 24보병사단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사단장은 병사옷을 갈아 입고 도망치다가 포로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화도 생겼다.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바다속에 상상시켜버린 주문전해전의 승리, 청천강과 장진호반, 청진과 함흥일대를 비롯한 격전장들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 우리 식의 백승의 전법인 안아온 결실이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강도전법,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화통, 이동보병중대활동, 습격수조화통 등도 적국적방어전략의 요구에 맞게 방어의 적극성을 높이

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수훈을 만드신 성취였기이며 지구상에서 칩락과 전쟁의 권위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야말았기이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기치높이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수령정사옹위의 억척불편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며 혁명대오를 오직 당의 사상만이 짊어지려는 불세의 전투부대로 다져나가야 하였기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반제반미대결의 모든 전선에서 적들을 압도하고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부기영화를 누리는 인민의 락으로 빛내어나가야 하였기이다.

회후의 승리는 정의와 진리,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지기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과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대오앞에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님은 양광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발달수 있는 최첨단의 전투력을 갖추어나가야 하였기이다.

군인대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발전이 계속 큰 힘을 넣어 혁명무력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였기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반제반미대결의 모든 전선에서 적들을 압도하고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부기영화를 누리는 인민의 락으로 빛내어나가야 하였기이다.

회후의 승리는 정의와 진리,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지기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과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대오앞에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님은 양광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발달수 있는 최첨단의 전투력을 갖추어나가야 하였기이다.

군인대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발전이 계속 큰 힘을 넣어 혁명무력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였기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반제반미대결의 모든 전선에서 적들을 압도하고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부기영화를 누리는 인민의 락으로 빛내어나가야 하였기이다.

회후의 승리는 정의와 진리,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지기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과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대오앞에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님은 양광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발달수 있는 최첨단의 전투력을 갖추어나가야 하였기이다.

군인대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발전이 계속 큰 힘을 넣어 혁명무력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였기이다.

5 번에서 계속

우리의 7. 27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정성력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새겨주는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은 끝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다시는 식민지도에 살이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하여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가지어 지키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청춘도 생애도 다 바쳐 용감히 싸웠습니다.

인민군전사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맞아 들거를 열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리들을 주련서 한치한치의 조국 땅을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뜨거운 조국애, 원수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우리 인민들은 적들의 맹목격과 겹쳐드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전선원호와 전선생각전투를 벌였으며 자기의 일파와 마음을 굳건히 보위하였습다.

적들의 그 어떤 공격공세도, 야수적인 만행도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안고 전진할 정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계승하며 빛내어나갈 귀중한 조국수호정신이 창조되었습니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조국은 끝 수렁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이며 그것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도 되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주체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었습니다.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당과 인민정권의 위력이 백배해지고 인민군대가 더욱 장성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사상정신적으로 역세게 단련된 강대한 인민으로 자라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말에 자라난 강대한 혁명대오는 우리 공화국이 전후 짧은 기간에 재대미를 헤치고 일떠서 수령님의전선에서 다시한번 영웅조선의 기개와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게 하였습다.

조선에서의 진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인 동시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였습니다.

세계의 평화호인민들은 조국수호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편대성, 사심없는 지원을 보내왔으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탄파하면서 반미반전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한편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술사상과 군사전법의 승리를

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와 비범한 공인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또한 수령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불굴의 정신력으로 싸울 때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수 수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한 세계사적사건이었습니다.

7. 27의 승리의 전통은 선군조선의 부강발전과 더불어 빛나게 계승되어왔습니다.

전후 사회주의건설투쟁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칩락전쟁을 책동을 반대하는 치열한 대결전의 편속이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평도말에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적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제압하며 부강조국건설과 사회주의의 한 걸음 승승장구하여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려사와 전통을 깨끗이 이어놓으시였습니다.

불세출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장강철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항간첩비행기 《CEC-121》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새 전쟁의 불꽃이 터뜨리며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무릅쓰고 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왔수 있었습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 평도말에 준엄한 조미해결결과와 사리의수호전에서 련전연승하고 우리 공화국이 불세의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진된것은 또한 한차례의 진승을 이룩한것과도 같은 거대한 민족사적사건입니다.

장강수십상상 반제반미투쟁의 최전방에 서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백두산대국의 무진과 강한 국력을 마련하시어 후손대대의 강성번영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를 다져주시였으며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발전을 적극 추동하여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려사와 전통을 깨끗이 이어놓으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침략전쟁행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성세를 허물어보려고 고약한 모략과 도발소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침략전쟁행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성세를 허물어보려고 고약한 모략과 도발소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침략전쟁행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성세를 허물어보려고 고약한 모략과 도발소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침략전쟁행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성세를 허물어보려고 고약한 모략과 도발소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이 땅에는 승리거리가 있다

백두산대국의 아들딸들의 가슴을 무한한 희열로 들먹이게 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수시로 전멸케 하는 또 하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

— 이 땅에는 승리거리가 있다.

미국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나온 광장이 이 거리와 잇닿아 있고 조성된 전장에서 편견 편승을 이룩하며 선군조선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긍지높은 력사가 이 거리에 숨배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에 백전백승 할수 있었습디다.》

승리거리는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세상사람들 보란듯이 세 거리를 밀어붙이고 기대를 안겨준 어머니수령님의 감사의 인사를 드려서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디다. 오늘날 새 세대는 아마 승리거리가 어떻게 되어 이 땅에 일떠서게 되었는지 다는 모를겁니다.》

승리거리에 대한 설화는 바로

전화의 나날에 시작되었다.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설계업군들을 최고사령부 부르고 평양시북구건설총회도작성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구건설을 준비해가지고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몸소 구상하신 전후 평양의 모습을 그려주시면서 모란봉에서 대동강을 따라 새로 대통령(오늘의 승리거리)을 뚫고 거기에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다층주택들을 일떠세워 수도중심부의 거리를 현대적인 도시맛이 나게 웅장하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전승의 레일을 내다보시고 현대적인 대도시의 웅장한 거대한 설을 구상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담대한 지략과 비범한 예지에서 커다란 고무줄 얻은 일꾼들은 전화의 그 어려운 속에에서도 지체없이 수도중심부의 대통령을 뚫기 위한 설계작성에 달라붙었다.

우리 평양을 하루빨리 현대적인 대도시로 꾸밀 배상을 가지도록 크나큰 무력과 기대를 안겨준 어머니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어 설계자들은 큰 담력을 가지고 설계를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세계의 도시건설력사를 놓고 보아도 나라의 존망이 판가리되는 전쟁마당에서 새 거리설계를

시작한 실례는 동서고급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폭격에 참새처럼 없어진 엄혹한 전화의 나날에 시작된 승리거리의 설계!

그것은 세계지도에서 조선을 없애버리고 피를 물고 달랠지는 미제와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투쟁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승리를 확신한 조선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또 하나의 영웅적사사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주민들이 폭격세례를 받아 다시 석기시대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지껄이면서 매일같이 폭탄을 떨어뜨리던 위대한 사상과 리념,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지략이 빛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불사조마냥 거센 창조적 날개를 펼치였다. 당시의 조선인민의 불굴의 모습은 목격한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력사는 지난날에 오며사, 케닌그라드 및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영웅적도시를 알고있었다면 오늘에는 전세계 진보적인 류의 찬양을 받으며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또는 산모범으로 되는 영웅도시 평양을 알고있다. ... 평양은 살고있다.》

평양은 미제침략군대와 그 용병들을 타승하고 결정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남다른 더욱 혼은하야간다. 평양은 전설에 있는 금세처럼 폐허속에서

부활할것이며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밝게 빛나면서 전보다 더욱 훌륭하게, 더 장엄하게 광채를 뿌리면서 재생활것이다. ...》

전승의 날은 이렇게 밝아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치시는 반미대결전의 작전도와 함께 부강민영의 설계도와 더불어 승리의 날이 밝아왔다.

나라마다 제 나름의 력사와 규모, 문명을 자랑하는 거리들이 있다. 하지만 선군조선의 승리거리처럼 세기와 더불어 더욱 빛나고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그런 거리는 세상에서 없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국의 력사가 이 거리에 집약되어있고 오늘날도 미제와 싸워 승리하는 조선의 기상이 이 거리에 빛발치고있다.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줄도 없게 모조리 쏟아버리라고 단호히 선언하고도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나온 조미대결의 력사는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름 누리는 조선민족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증명하였다.

승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조선의의이다. 이 땅에는 승리거리가 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전승절을 맞으며 전 쟁로병들을 찾아 취재했다. 전승을 이어가는 열 마나 기쁜 일인가. 이 땅에 전승의 축복이 가리켜서 60여 년전 그날의 환희를 느끼는 일인가.

전쟁의 포화속을 뚫고 높은 전쟁로병들은 금은 보화에도 비길수 없다고 하시며 온갖 은정 깊은 조지를 다 취해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고 한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화선봉사의 행군길을 뜻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다.

대성구역 통복동 68인민반 김주한로병의 집을 찾아서

은 사진들을 마주하고있다. 《요즘은 계속 사진들을 들여다보다. 전승절을 맞고보니 전우들생각이 간절해질수밖에요.》

김명숙녀성의 말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에서 군관으로 싸운 김주한전쟁로병은 가말한 싸움터마다에서 전우들의 영웅적위훈을 수없이 체험하였다.

그들속에는 불붙는 적의 화구를 맞받아나간 분대장도 있었고 수송로를 열기 위해 지리밭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용사도 있었다. 전우들을 가슴으로 덮고 숨진 전사는 또 몇인가.

우리는 사진들을 받아들였다.

사진속의 전사들을 한명 한명 가리키며 누구는 어느 도하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 누구는 어느 고지탈환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말하는 로병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전사들을 부를 때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였다.

《그들이 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겠소. 자기들은 비록 죽지만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때문에 이 아니겠소.》

김명숙이 가까이와 매번 김주한로병은 늘 사진속의 전우들을 바라보며 전화의 나날을 추억하

전쟁로병과 사진첩

대성구역 통복동 68인민반에 사는 김주한전쟁로병의 집을 찾아서

은 사진들을 마주하고있다. 《요즘은 계속 사진들을 들여다보다. 전승절을 맞고보니 전우들생각이 간절해질수밖에요.》

김명숙녀성의 말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에서 군관으로 싸운 김주한전쟁로병은 가말한 싸움터마다에서 전우들의 영웅적위훈을 수없이 체험하였다.

그들속에는 불붙는 적의 화구를 맞받아나간 분대장도 있었고 수송로를 열기 위해 지리밭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용사도 있었다. 전우들을 가슴으로 덮고 숨진 전사는 또 몇인가.

우리는 사진들을 받아들였다.

사진속의 전사들을 한명 한명 가리키며 누구는 어느 도하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 누구는 어느 고지탈환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말하는 로병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전사들을 부를 때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였다.

《그들이 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겠소. 자기들은 비록 죽지만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때문에 이 아니겠소.》

김명숙이 가까이와 매번 김주한로병은 늘 사진속의 전우들을 바라보며 전화의 나날을 추억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는 전승을 맞이하여 비로소 태어난 노래가 아니었다.

이 노래의 구절인 상은 이미 전화의 나날에 펼쳐진 것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있었던 것이다.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들이 경축의 노래를 부르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전승세대들이 부른 노래는 승리의 기쁨과 환희만을 전하지 않았다.

준엄한 전화의 포성을 승전의 축포소리로 가세버리듯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진 《우리는 승리했네》의 노래는 《조국보위의 노래》로부러 시작된 우리의 전사들이 떠돌던 장쾌한 승전가였으며 찬란한 레일을 향하여 역세게 나아가는 승리자들의 힘찬 진군가였다.

전승을 맞이한 조국땅위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사람들은 북구건설의 장엄한 음향을 심장으로 느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 작전도 위에 펼쳐놓으셨던 전후북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는 오늘날 레일도 영원히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새겨주며 새 세대를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영웅들의 녀》앞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강령호전쟁로병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았다.

뜻깊은 이날 전우들의 녀이 살아숨쉬는듯한 력사묘를 찾은 로병의 추억은 참으로 깊다.

락동강모래밭에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 전사들은 얼마이고 이들도 남기지 못한채 남녘의 외진 산기슭에 묻힌 용사들은 얼마인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크 은보라로 뿌려진 비행사들은, 적함을 맞받아 한몸이 그대로 어찌가 되고 육탄이 된

해병들은 또 몇몇... 그 영웅전사들이 이곳에 다모였다.

《전우들, 내가 왔소. 우리가 왔소!》, 이렇게 부르던 금시라도 펼쳐질이나 반겼던 것 같은 미더운 전우들이다.

가슴 가득 빛나는 훈장과 메달들, 그 하나하나의 위훈의 징표들을 애써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한 전우들과 헤어놓고 생각할수 있리라.

그들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통째로든 싸움의

나날에 대하여, 그들이 그려보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진 오늘에 대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해만 가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당의 열화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하기에 사람들의 목결 끝없이 흘러도 로병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전우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미제침략자들의 최후발악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마지막 판가리결사전이 전선과 후방 그 어디에서나 가말쳐질하게 벌어지던 주제 42(1953)년, 포연이 흐르는 고지의 군인들과 싸우는 후방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느덧 승리의 환희가 북아호르로 전승의 날을 앞두고 시인, 작곡가들의 심장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조국강산에 울려 퍼질 새 노래들의 곡상과 시상들이 무트릭이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후북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창작된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와 찬가, 혁명적이고 노동적인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선진적이며 추진시키는 데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고무적기기로 되였습니다.》

시사하여 인원들을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네 ...

한민수조자들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승리의 열망이 그대로 경축의 시와 선율이 되어 울린 이 노래는 창작되자마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꿰뚫는 환희에 젖게 하였고

에서 한번도 폐한적이 없었다는 미제침략군과 맞서싸워야 하였다. 세계전쟁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었던 너무도 엄청난 무력차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초한 공화국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수호의 보검을 역세게 들

어잡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류태없이 가말하고 엄혹한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처스러운 매배를 안기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고지들과 하늘과 바다에서 사할하는 조국군도 용감히 사수하여 인원들을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네 ...

한민수조자들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승리의 열망이 그대로 경축의 시와 선율이 되어 울린 이 노래는 창작되자마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꿰뚫는 환희에 젖게 하였고

부구와 건설의 웅장한 진군복소 리마냥 내 나라를 격동시켰다.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는 3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과정에 대한 훌륭한 예술적 반영이었다.

전쟁초기에 벌써 우리 인민은 이미 이겨놓는 전쟁, 승리의 전쟁을 하고있다는 신심과 락판에 넘쳐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0(195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지도도에 평양시북구건설총회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주제 41(1952)년 5월에는 전후 평양시북구건설의 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도 진행되었다. 웅장하게 꾸려진 대동강유보도, 도시중심부의 형성과 도로배치를 보여 주는 모형들,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설계도들...

전람회장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승리한 조국의 레일을 보는것만 같은 크나큰 격정과 희열로 더불어 울렁거렸고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용용히 굽이치는 북구와 건설, 승전의 거대한 동음으로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전승

모의 농장건설이 추진되었으며 평양시북구건설총회계획도 작성되었다. 전선에 나가 싸우던 대학교원들과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대학으로 돌아오고 전사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장대학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가말쳐질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전쟁의 승리와 전후북구건설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세계전쟁사상 류태없는 조치들이었다.

... 빛나는 승리의 기 펴 펴 펴 날리며 영명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매일의 찬란한 건설 위해 나가자 매일의 찬란한 건설 위해 나가자

전쟁의 마지막해에 태어난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

위대한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만년보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진민족적 영웅적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다음날은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다음날장관소인 야외전시장에 이르렀다.

야외전시장은 《승리》상을 중심으로 교양마당 향예로 꾸려져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야외전시장은 사적 및 공훈무기전시장과 로회무기전시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이곳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우리 인민군대의 무기전투기술기재들과 전쟁시기에 로회한 적들의 무기의 일부를 전시되어있다.

고지의 교룡호를 방불케 하는 안대토로를 따라 사적 및 공훈무기전시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한것은 은빛날개를 번뜩이는 전투기들이었다.

전투기들 중에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어느 한 비행편대를 찾으시어 몸소 보아주시고 비행기좌석에도 앉아보시면서 유능한 비행사들을 많이 키워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귀중한 사적비행기가 있었다.

우리는 강사로부터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나라의 영광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항공무력을 창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머니수령님의 별개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된 비행기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비행대가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부터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여 혁명적 전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추격기와 미제 《하늘의 요새》라고 떠벌이던 《B-29》를 비롯한 10여대의 적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여 공화국영웅훈장을 받은 추격기,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영웅강성대비행사가 동해안일대 상공에서 수많은 적기를 격추, 격상한 추격기...

미제의 《공중우세》를 산산이 짓부셔버린 우리 비행대의 장한 《예》들을 돌아본 우리는 어찌정 21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찌정 21호는 세계해전사에 유명한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지휘적으로 활동한 함선이다.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움직임은 섬》으로 불리우던 적순중양함을 격침시킨 주문진해상전투를 두고 당시 세계는 세계해전사에 있어본적 없는 기적이고 신화라고 하면서 범석 되었다.

전시장에는 서울해방전투때 제일 먼저 시내에 돌입한 312호정도 전시되어있다.

1211고지방어전투, 고산전대공전투, 3511고지전투,

811.7고지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아군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각종 포병도 전시되어있다.

포신이 휘흔의 별이 가득 빛나는 포병들은 해안포도 있었다. 그 포를 바라보노라니 월미도해안포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단 4문의 포를 가지고 침략자들의 대병력과 맞서 3일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지연시켰으며 아군의 기동을 보장하고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월미도의 용감한 해안포병들, 그들은 비록 떠나갔어도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은 포신들에 새겨진 별처럼 영원히 조국청사에 빛을 뿌리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이룰수 없는 격정으로 설레었다.

사적 및 공훈무기전시장을 나선 우리는 로회무기전시장으로 향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면서 미제가 크게 믿었던것은 저들의 무장장비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수많은 비행기와 함선, 탱크와 포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놈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처스러운 매배였다.

로회무기전시장은 미제의 매배상을 여지없이 실증해주는 육중한 적포크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중에는 미1해방사단장 스미스가 무덤장군이라는 수처스러운 별명을 받은 장진호전투에서 인민군대가 로회한 적포

크도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순욱영웅이 깨부신 2대의 중포크들이 바로 무제가 군 50t에 달하는 저런 포크들이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는 눈앞으로 방망수수류탄을 안고 적포크를 맞받아나가는 영웅의 모습이 언저졌다.

로회무기전시장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격추된 미제침략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도 전시되어있다.

미제는 전쟁 첫날부터 술한 비행기를 동원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폭격하였으며 대공전투를 벌이면서 그것으로 제방

들에게 불리한 전쟁국면을 돌려세워보려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공중우세》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전선과 후방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비행기사냥군조운동에 의하여 풍지박산나고말았다.

로회무기전시장에서 우리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는 특장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들의 무장장비의 우세를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의 우세로 타파하였으므로 오랜 세월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법적으로 되어오던 《무기대론》에 증거부름

적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로회무기전시장은 미제의 대항전비행기 《EC-121》을 비롯하여 전후 우리의 령공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격추된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의 잔해와 사진자료들도 전시되어있다. 그것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전쟁의 년대를 어떻게 빛나게 이어왔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내 조국의 신성한 바다로부러 오르는 승리의 대진당을 감싸안고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으로 갈라지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루에블로》 호가 《보복》에

전면전쟁으로라는 폭탄선언으로 오만무례하게 날뛰던 미제의 기를 꺾어놓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한 천출명장의 당력과 배양이 바로 조선의 무장의 힘이며 승리의 원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관자들은 야외전시장참관을 통하여 탁월한 군사전략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전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이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울수 있었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새기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셨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리명환

영웅조선의 승리는 포화속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베를린에 휘날린 공화국기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모든 축전행사들에서 조선 청년학생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세계 청년학생들의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4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세계청년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전세계 청년들의 친선과 단결을 시위할 목적으로 세계청년축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차 세계청년축전은 1947년에 브라질에서 진행되었으며 제2차 축전부터는 국제학생동맹이 참가하게 되면서 세계청년학생축전으로 부르게 되었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진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청년학생들의 국제적인 정치, 예술, 체육행사로서 여가에 사상과 정경, 신앙과 피아이에 관계없이 세계 5대륙의 각국에서 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한다.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1951년 8월 5일부터 8월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19일까지의 기간에 도이쾰른 드린주주의인민공화국(당시)의 수도 베를린에서 《청년들이여, 새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고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단결하라!》라는 구호 밑에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백수십명의 모범전투원들과 근로청년들, 모범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포함한 100여개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 수만명과 명예손님, 외국관판단, 외국기자 및 촬영가 등이 참가하였다.

8월 5일 베를린에서 있는 세계청년경기장에서 진행된 축전개막행사는 각국 청년학생대표단들이 행진하면서 입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이 입장할 때 선수에는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은 4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행진하였는데 그들은 전선에서 특출한 활약을 세운 모범전투원들이었다.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기가양양하게 행진해나가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향하여 열렬히 환영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불렀으며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축전기간에 진행된 시위에서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우리 대표단을 환영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에 굳은 연대를 표시하였다. 공중집회에서 연설한 각국 대표들은 조국해방전쟁을 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결의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불렀다.

예술축전에 참가한 조선청년 예술단은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판중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을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의 열렬한 축하와 찬송의 절친속에 《평화와 친선의 상》을 수여받고 예술축전종합 순회에서의 민족무용,

합창에서 각각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기간에 진행된 집담회에서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모습,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만행자료, 국제적연대성운동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자료와 미제와 그 주구들로부터 로획한 무기과 탄약, 각종 포탄까지 수십종과 그것으로 만든 화산악기와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다.

수만명의 외국인들이 조선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한결같이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저주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교예의 눈부신 발전, 그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이다.》

국립교예단은 세계적으로도 명성높은 우리 나라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이다.

수중교예, 빙상교예, 풍물교예를 비롯한 다양한 교예형식들을 종합적으로 창조하고 공연하는 예술단체로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와 기교,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립교예단은 주제예술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보는 사람모두를 경탄속에 눈을 못 떼게 하는 공중교예는 수십년째 세계적인 패권을 양보한적 없이 배웠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이 긍지높이 바라보는 국립교예단이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 창립된 교예단이라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

들은 얼마 되지 않을것이다. 국립교예단은 1952년 6월 10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그 엄혹한 환경속에서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때로부터 주제교예예술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전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흐름을 파괴하며 적아간의 승패속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극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어떤 군사조직이나 원호단체가 아니라 교예예술단체가 생겨난다는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일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맑은 앞날을 구상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께서는 주제 41(1952)년 3월 5일 문화선전상(당시)에게 나라의 예술을 전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교예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예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교예단(당시)을 창립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고 교예예술의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교예유산들을 발굴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교예배우선발과 양성문제, 훈련과 공연에 필요한 조건보장문제들을 하나하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 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승리를 앞당겨갈 크나큰 신심과 락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등을 반영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창작하여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떨치였다. 조선인민군 제3차 근무지미술전람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1953년에 진행된 전시전람회 출품된 작품수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 주제, 다양성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높은 경지를 떨치였으며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무궁무진한 창작적열정과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보여주고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더욱 개화발전한 우리 미술의 위력을 담김없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인민군장병들이 가련한 전투들과 더불어 체험한 일을 수 없는 투쟁과 생활의 화폭들, 구체적인 전투장면들, 원수를 통해헤쳐 쳐부신 승리의 기쁨과 긍지 등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이었다. 또한 전시용사들이 불타는 고지들과 싸우며 지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화구 등을 리용하여 전투의 여파에, 경도의 등 불타는 장막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작품들은 박력있고 생동한 서사적 화폭을 펼쳐보여졌다.

가장 우수한 작품중의 하나가 351고지를 지키는 용사들의 분골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 《351고지를 지키는 용사들》이었다. 작품에는 351고지방어전에서 적들의 10여차례에 걸친 반동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수호한 용사들의 불굴의 투지가 잘 형상화되어있다.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는 고지에서 마지막돌격전을 앞두고 희생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는 용사들의 불굴의 투지를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려준 작품, 락동장전투에서 적

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전투경면을 인상깊게 그린 작품, 미제공중비적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완강성을 발휘하고있는 녀성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등도 있었다.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전시되어 주목을 끌었다.

전람회에는 또한 한말을 잃은 인민군용사가 남은 한말로 적을 쳐부신 불굴의 모습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잘 형상한 조각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작품들은 풍기름과 칠감, 등사잉크, 나무껍질, 탄피, 흙, 세멘트 등을 재료로 하고있었지만 그 예술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훌륭한 영웅전사들이 조국을 사수하였고 침략자 미제를 멸망의 구렁렁에 처박았다.

1950년대 조국수호전쟁을 그레로 이어받은 우리의 천만군민은 침략의 무리들이 또다시 이방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온다면 그대에는 항부에서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되리니 적의 공격에 고지에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려준 작품, 락동장전투에서 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세운 영웅적위훈과 그들의 투쟁정열은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전선전투모습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산모범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남는다.》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던 전화의 그 나날에도 이 땅에는 배움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종소리는 원수들의 폭을 짓누르며 학생들을 배움터로 불렀다.

포화속의 종소리! 그것은 항일의 나날에도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도 언제나 조국의 미래를 품어안고 지켜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손길아래 울려 퍼진 사랑의 종소리, 승리의 종소리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터 시기에 벌여 교육사업을 전선전투로 완전히 개편하도록 하시니 전선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생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교예의 눈부신 발전, 그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이다.》

국립교예단은 세계적으로도 명성높은 우리 나라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이다.

수중교예, 빙상교예, 풍물교예를 비롯한 다양한 교예형식들을 종합적으로 창조하고 공연하는 예술단체로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와 기교,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립교예단은 주제예술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보는 사람모두를 경탄속에 눈을 못 떼게 하는 공중교예는 수십년째 세계적인 패권을 양보한적 없이 배웠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이 긍지높이 바라보는 국립교예단이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 창립된 교예단이라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교예의 눈부신 발전, 그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이다.》

국립교예단은 세계적으로도 명성높은 우리 나라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이다.

수중교예, 빙상교예, 풍물교예를 비롯한 다양한 교예형식들을 종합적으로 창조하고 공연하는 예술단체로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와 기교,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립교예단은 주제예술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보는 사람모두를 경탄속에 눈을 못 떼게 하는 공중교예는 수십년째 세계적인 패권을 양보한적 없이 배웠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이 긍지높이 바라보는 국립교예단이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 창립된 교예단이라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한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리움을 안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패업을 내다보시며 조선인민군체육단을 조직하여주시던 못 잊는 그 나날을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를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습니다.》

주체 40(1951)년 9월 어느 날 고사성부의 작전실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

었던 대표들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경기에 나가 잘 싸웠다고, 한창 전쟁을 하다가 총대신 공을 잡고 달려가서 아주 잘 싸웠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몇몇인가가 같이 생각하시다가 열정적인 어조로 조선인민군대에 체육단을 내내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시기에 인민군인들도 체육단을 조직한다는것은 보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결단이었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인 인민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때라고 체육활동을 못한다

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베를린 축전에 체육대표단을 떠나보낸 때부터 이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 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아버지수령님을 응시했다. 항일의 혈전투쟁을 헤쳐며 일제의 백전백승을 위락시켜왔던 열정적정열이 아니라 고사성아 어 떻게 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벌써 승리한 패업을 내다보시고 이렇듯 경이적인 대우를 내리실수 있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찬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인민들에게 전쟁이 한창인 때에 군대안에 체육단을 조직한다는것이 환경에 맞지 않는것 같이 생각할수 있는데 그만한 여유도 없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는가 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냐 다름없다고, 체육인들을 한 100명 뽑는다고 전신이 죽겠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부터 석달후인 주체 40(1951)년 12월 15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명령 제0644호 《조선인민군체육단을 조직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시였다. 이 령도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배짱, 천리헤인의 예지가 있었기에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이 체육훈련장으로 소환되는 세계전투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명의 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다.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은 온 나라에 승리의 신심을 대추하는 못 잊는 그 나날을 심장에 새겨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기어 이 실현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을 더욱 빛내여 갈 줄라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주 령 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날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과학기술발전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준엄한 전장이 한창이던 주체 41(1952)년 4월 평양에 모란봉지하극장(당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과학자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게 된 리승기선생은 기뻐차절찬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패업을 확신하시며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한 만민대계를 펼쳐주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연락에 나선 리승기선생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실비율과 기술문헌들을 많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외향된 청도 나무랄지 않았고 그에게 하나하나 적어넣으시였다. 그리고 대회 휴식시간에는 리승기선생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날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과학기술발전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준엄한 전장이 한창이던 주체 41(1952)년 4월 평양에 모란봉지하극장(당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과학자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게 된 리승기선생은 기뻐차절찬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패업을 확신하시며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한 만민대계를 펼쳐주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인민군인들과 한전호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는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들



오락회를 하는 조선인민군 양크병들



전선에서 대학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뜨겁게 맞이하는 김책공업대학(당시) 교직원, 학생들

다음 주에 진행될 청소년선수권 대회 경기들

청소년선수권대회 종목별 경기가 시작되었다. 다음에 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남, 녀경기들이 진행된다. 28일부터 예술체조, 교예, 무선패물경기들이 성천강체육단 상업성체육단, 대성사에서, 29일부터 바드민턴경기, 청춘리 바드민턴경기관에서, 30일부터 정구경기, 합동모방직공장체육단에서 각각 진행된다.

15살미만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탁구경기 8월 2일부터 평양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도착

류전현국장이 인솔하는 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26

브라질공산당대표단 귀국

라울 크로에 당중앙위원회 부판이 2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